

서가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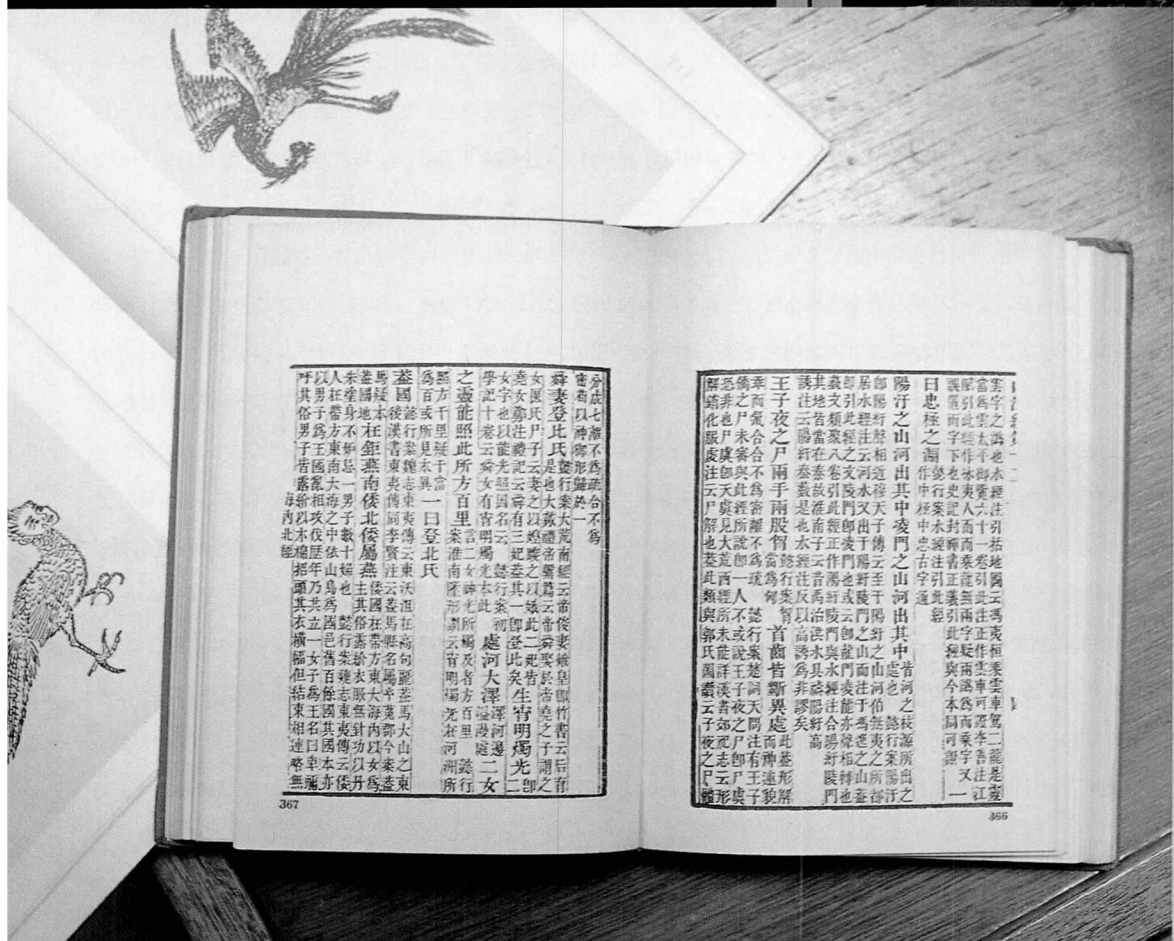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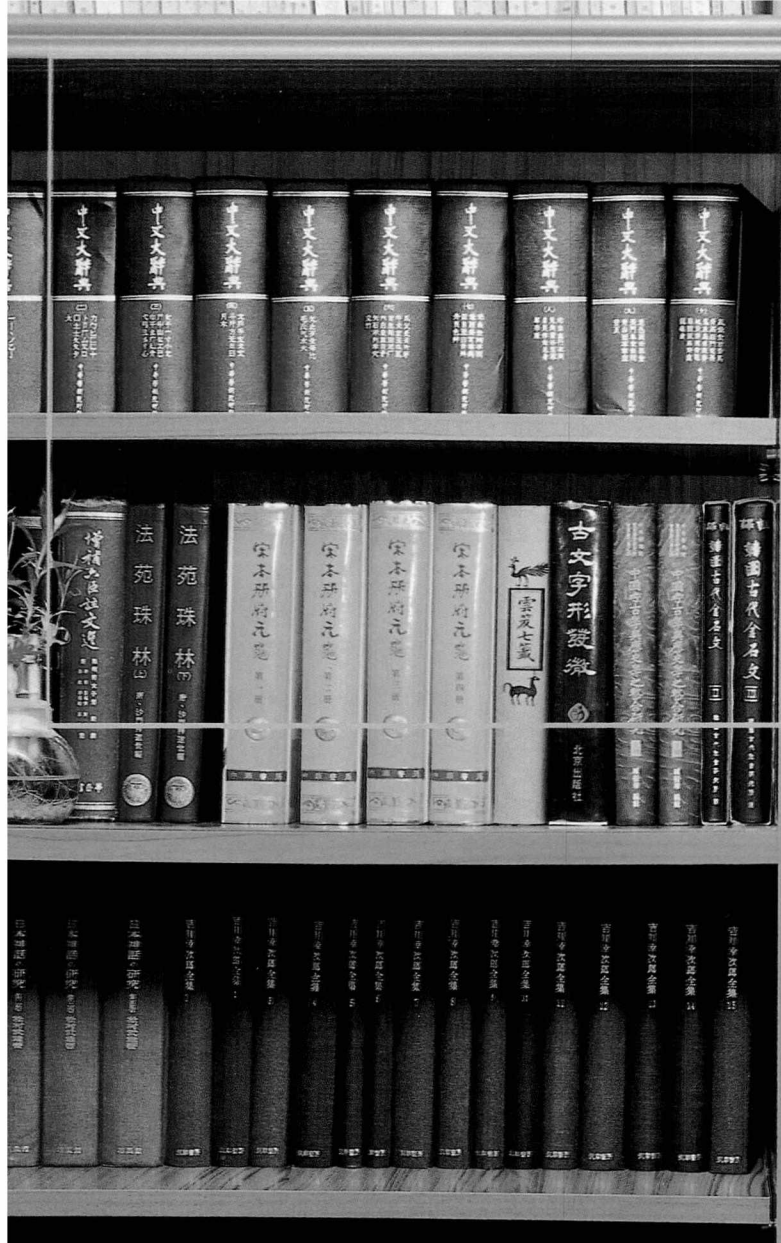
## 신화와 상상력의 소유주

이화여대 중문과 정재서 교수의 서가

이화여대 중문과 정재서 교수(50)의 연구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액자가 하나 있다.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가 정교수의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다. 정교수가 이 액자를 특히 아끼는 것은 정인보가 당시 주류 학문이었던 성리학이 아닌 양명학을 연구했던 탓이다. 그의 집

안 역시 양명학으로 뿌리깊은 집안이어서 그는 더욱 정인보를 '사모' 한다. ■ 정교수가 보관하는 이 액자는 주류가 아닌 주변에서 상호텍스트적인 문화구성체를 이루고자 하는 정교수의 학문적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1980년대에 그는 주류 이데올로기의 천편일률적인 경향에 답답함을 느꼈다. 정교수는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성으로 세계를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녔는데, 그가 이른 곳이 바로 신화와 상상력의 세계였고 《산해경(山海經)》의 세계였다.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산해경》번역에 매달리던 때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기까지 했다. 주류가 아니라는 이유다. 그러나 그는 《산해경》에서 중국학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고 마침내 자신의 번역과 주석으로 《산해경》(민음사)을 세상에 내놨다. 동아시아 전체가 이른바 상호텍스트적인 교류 관계에 있던 시기의 책이 바로 《산해경》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 정교수의 이런 학문적 성격답게 그의 서가에는 온통 신화와 상상력에 관한 책들로 가득차 있다. 한글로 된 책은 거의 집에 놔두고 연구실에는 주로 원서만 있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이 《한국경학자료집성(韓國經學資料集成)》《한국한문소설전집》같은 한학 관련 전집들이다. 자신이 비록 중국문학을 연구하지만 한학으로서 중국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만의 고유한 중국학을 이루고 싶다는 정교수의 바람이 이 책들에 깃들어 있다. ■ 중국책으로는 《삼국지》《금병매》 등 고전소설들이 보이고, 송대 이전까지 사적을 수집해 기록해놓은 《송본책부원구(宋本冊府元龜)》, 송대에 발간된 도교에 관한 책 《운금칠첩(雲笈七籤)》과 함께 《정통도장(正統道藏)》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교수의 글쓰기가 고전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도 바로 이 책들과의 부지런한 대화 속에서다. ■ 그의 서가에는 일본책도 많다. 일본 신화연구가인 요시카와 고지로의 《요시카와 고지로 전집》《일본신화연구》 등 신화 관련 책들이 얼른 눈에 들어온다. 또 이미 국내에 소개된 바 있는 앤거스 그레이엄의 《도의 논쟁자들》, 벤자민 슈윙초의 《중국 고대사상의 세계》 같은 책들도 보이는데, 영어권 책들 또한 거의 신화와 중국학 관련 책들이다. 이 책들은 대학원에서 세미나 교재로 자주 쓰이는데, 중국에 대한 서양의 시각을 학생들에게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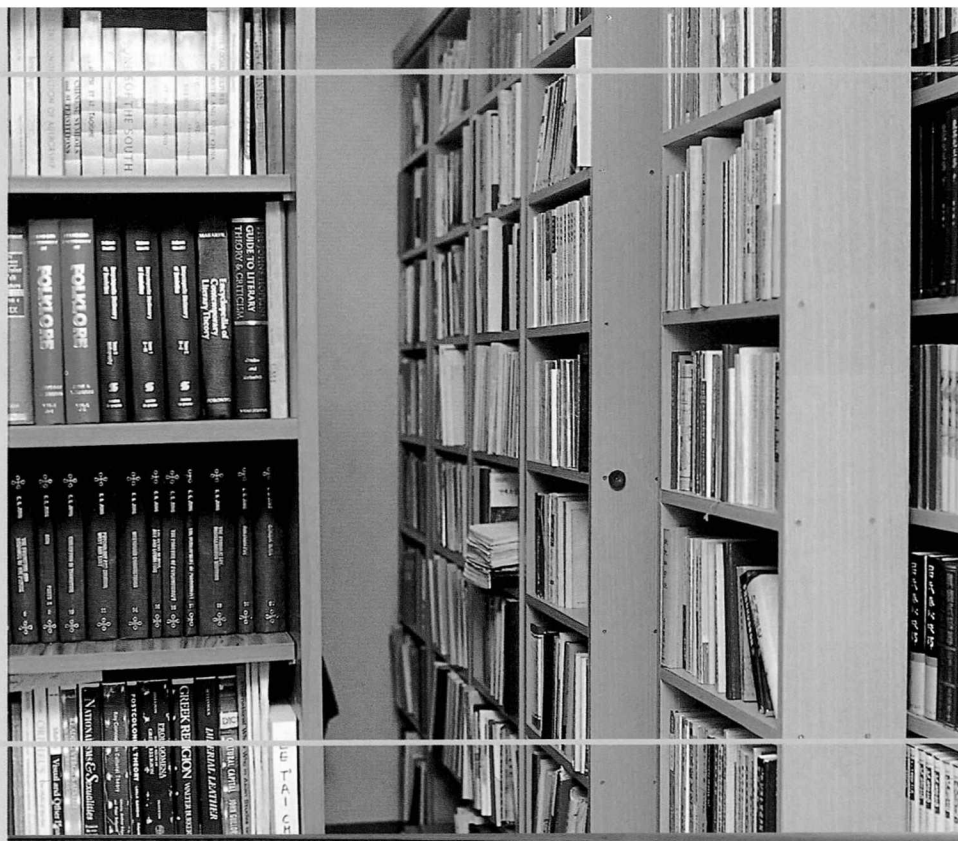
정재서 교수는 1952년 충남 온양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문리대 및 같은 대학 대학원 중문과(문학박사)를 졸업했다. 하버드대 연칭연구소에서 연구했고 현재 이화여대 중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은 책으로 《불사의 신화와 사상》(민음사), 《동양적인 것의 슬픔》(살림), 《동아시아 연구》(살림) 등이 있다. 《불사의 신화와 사상》으로 한국 출판문학상 저작상을 받았다. 《산해경》(민음사)을 번역했다.



정재서 교수는 제3의 중국학을 천명한다. 제1의 중국학이 중국 내의 중국학이라면 제2의 중국학은 일본과 미국의 중국학이다. 제3의 중국학은 우리나라의 한학 전통을 이어받아 중화주의와 오리엔탈리즘의 악점을 동시에 극복하는 '한국이라는 예각'에서 보는 중국학을 이른다. 이런 토대 위에서 그의 학문은 동아시아의 연대로 나아가고, 이런 연대가 세계화라는 미국 중심의 지배문화에 대항하도록 하는 것이다(위).

"《산해경》은 내 학문의 출발점이에요. 이 책을 볼 때마다 저는 아련한 꿈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상상계로 진입하는 느낌 말이지. 이 책에서 저는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인의 원초적 심성을 봅니다. 파넬넬 파넬수룩 의미가 샘솟는 책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 책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느끼곤 합니다"(아래).

보여줌으로써 한국인으로서 바라보는 중국이 아닌, 중국에 대한 또다른 거리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 연구 과제에 대해 묻자 그는 “동아시아 신화를 중심으로 한 상상력의 체계와 의미를 밝히고 그리스로마적인 상상력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학적 체계를 수립해나가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보니 그의 서가에는 참 많은 동아시아가 각자 다른 색깔의 눈을 깜박이며 《산해경》 속의 동물들처럼 숨쉬고 있다. ■ 그의 서가를 돌아 나오다 청나라 때 작품으로 인간 신체를 도교적 시각으로 표현해놓은 <내경도(內景圖)>를 발견했다. 소우주인 신체에 대우주인 자연이 다 들어가 있고 천체 기운이 유통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교수의 학문도 이와 같을 것이라 짐작해본다. —김장근 기자



나에게 책이란...

책은 어떻게 보아도 맛있다. 가지런히 꽂혀져 있는 책도 맛있고 그방 책상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책도 맛있다. 책은 밖으로부터 힘을 빌리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가치이기 때문에, 나도 책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책에 존재하듯이.

2001. 11. 22  
鄭在書

지난 여름 너무 많은 책 때문에 교수연구동 맨 꼭대기층 좀더 넓은 연구실로 이사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 그는 이 삼단책장을 주문제작했다. 집과 연구실에 있는 책을 합치면 모두 2만여권이나 된다. 책은 정교수한테 있지만, 그의 이름(在書)처럼 그도 책에 있다. 책은 그의 몸이고 그의 소우주다(위).

정인보는 당시 충청도 군수로 있던 정교수의 조부에게 충무공 후손의 불우한 삶을 걱정해 취직을 부탁한다. 이 편지는 일이 잘 처리된 데 대한 감사의 편지다. “초가을에 한번 이별하고 갑자기 눈이 내려 맑은 자태가 더욱 생각난다”는 아름다운 구절로 시작하고 있다(가운데).

정교수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서구 여성학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토대 위에서 생겨난 자생적 여성학을 밝히는 연구에 몰두했다. 한나라 때 씌어진 《열녀전(列女傳)》을 통해 유교주의에 입각한 이상적 여성상이 어떻게 동아시아 여성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했다. 근원적 탐색으로 동아시아 여성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사진은 연구의 참고자료들(아래).

